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그리기와 쓰기를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강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길을 걸었다. 광주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벚의 도움을 받아 주상절리 주차장에 도착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단축되었다. 빠른 기차가 생겨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북쪽으로 갈수록 연두 빛 산하에 눈이 활짝 떠진다.

21년 가을에 공개한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주말이라 사람들 꼬리를 물고 길을 걷는다. 가끔씩 보여주는 절경에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전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주상절리 길을 한 시간 반을 걸었다.

한탄강의 비경도 멋지지만 아직까지 남은 봄빛이 참 좋다.

연두 빛 색을 담은 산하를 보니 우리나라도 꽤 낫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남도의 나뭇잎은 벌써 초록의 색깔을 담았는데 북쪽에는 보들보들한 잎이 사람의 손길이 다가가게 한다. 한탄강 길을 걸을 때 가장 인

상 깊은 곳은 돌 단풍잎 길이었다.

바위 밑에 자리 잡은 돌단풍이 군락으로 피어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돌단풍을 자세히 바라본다.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자신의 자리를 고고하게 지키는 돌단풍의 자태를 감상하다보니 일행과 거리가 멀어져 발걸음을 서두른다.

여행을 하면서 빠른 걸음 보다는 가끔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멈추어 사물을 관찰하는 자세는 중요하며 교육에 있어 그리기와 쓰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교육이 시작되는 유아 교육에서부터 관찰을 통한 그리기와 쓰기는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

관찰의 통한 그리기 활동의 대표적인 수업은 레지오에밀리아 교육의 표상활동이다. 1차 표상, 2차 표상, 3차 표상을 통한 그리기 활동은 지적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에 중요하다. 나뭇잎을 그린다면 나뭇

잎의 색을 탐색하며 탐색의 과정을 통해 관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사물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러스킨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인류에게 글쓰기 기술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며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 러스킨이 말한 데생 기술은 화가가 되는 것보다는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러스킨은 아름다움과 그 소유에 대한 관심에 대해 다섯 가지 핵심적인 결론을 말한다. '첫째 아름다움은 심리적인 동시에 시각적으로 정신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물, 둘째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움에 반응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타고난 성향이 있다. 셋째 이런 소유

에 대한 욕망에는 저급한 표현들이 많다(기념품이나 양탄자를 산다거나, 자기 이름을 기둥에 새긴다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 넷째 아름다움을 제대로 소유하는 방법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아름다움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의식하는 것, 다섯째 의식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쓰거나 그것을 그림으로써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장소들을 묘사하는 것'. 러스킨은 그림과 글쓰기는 사물의 깊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관찰을 통한 그리기와 글쓰기는 사물을 통한 그리기는 관찰하면서 구성요소에는 깊은 이해를 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가지게 되며, 사물 자체 본질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또한 글을 쓴다는 것도 자체를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이며 글쓰기는

글을 통해 사물과 내면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봄빛이 사라지는 계절이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는 시기에 만발했던 꽃들도 사라져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봄빛이 가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자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름다운 감성과 마음이 파스한 사람이다.

한 시인의 글이다. '시는 아름다운 언어를 옮겨 놓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글을 보면서 아름다운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을 하는 시인과 화가의 깊이를 생각해 본다. 누가 보았는가? 바람이 지난 다음에 꽃이 맺힌다는 것을 누가 알았는가? 바람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술관을 찾든지, 시를 읽으면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바다에서 사고예방 첫걸음은 구명조끼 착용



정정욱 /원도해양경찰서 회진파출소 팀장

어업인들에게 바다란 가족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는 기회와 행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생명'이라는 무거운 담보가 전제되어 있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부담 등으로 고령부부 및 1인이 승선하는 '나홀로 조업선'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해상에서 관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곤 한다.

안타까운 사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어업인들이 조업 시 착용하는 일체형 작업복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일체형 작업복은 효율성과 활동성이 좋아 많은 어업인들이 선호·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 중 바다로 추락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 일체형 작업복은 구조상 옷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물 위로 올리려고 해도 작업복 안으로 들어간 물 무게와 체중에 의해 선상으로 올라오기 힘들다.

특히, 1-2명의 '나홀로' 또는 고령 부부의 조업 중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세력 도착 시까지 버티기도 어렵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구명조끼를 착용 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명조끼 부력에 의해 구

조세력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인근 어선 등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와 낚시 어선이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나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명시

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랜 습관과 편익상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이제는 개인 안전과 가족 행복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해양경찰도 각종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육상에서는 안전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가정폭력신고 주저하지 마세요



박은우 /순천경찰서 경무과

는 가족을 이렇게 폭행 할 수 있나"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이번만 참으면 우리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술을 마셔서 그런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참고 버티지만 이런 행동은 가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되어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면하지 않고 주변의 관심과 신고로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통해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로 인식하고 신고하여 사회 구성의 1차적 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육상에서는 안전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가정폭력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112로 신고하게 되면 출동경찰관에 의해서 가·피해자 분리 후 진술을 청취한다. 피해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사건 처리 및 경고 조치가 진행되며 가정

폭력전담경찰관에게 연계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 치료를 위한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곁에는 경찰관이 있다. 국민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 또는 목격에 대해 신고하여 2차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길 바래 본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3 columns: 지국안내, 지사안내, and contact numbers for various regions like Chungcheong, Gyeonggi, etc.